

‘다동이 자녀’ 기업이 함께 키웁니다

순천시 ‘다동이 꿈 키움 사업’ 결연식...출산 장려·육아 친화 환경 조성 참여 기업, 7년째 넷째 이상 출산 가구에 1년간 매달 10만원 후원금

순천 다동이 가정 자녀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기업들이 함께 팔을 걷는다. 순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9개 지역기업과 ‘2024년 다동이 꿈 키움 사업’ 결연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다동이 꿈 키움 사업에 동참하는 기업은 현대여성아동병원, ㈜동부그린,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 대성시스템(주), 현대제철(주), 순천우리병원, 순천시산림조합, 성가톨릭병원, 미즈여성아동병원, 순천교통, 이노센드(주), ㈜에코그린, 플러스네과,

㈜제이엘건설, 쌍지들, 지리산상계한의원, 수환의원, 강남더팜치과의원, 광진철물건재 등이다. 이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중심 육아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기업과 다동이 가장 긴 일대일 결연을 통해 자녀들을 후원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넷째 이상 출산한 19가구에 1년간 매달 10만원의 후원금을 전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시작한 뒤 7년째 추진하

고 있다. 올해까지 147개 기업이 149가구에 1억 7800만원을 후원해왔다. 순천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409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순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확대, 취업자 주거비 지원, 예술의 전당 건립, 종합스포츠타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다동이 꿈 키움 사업에 기업이 동참해 준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의 전한다”며 “우리 시는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바가지 요금·위생 점검 ‘관광대책반’ 가동

10월27일까지 11개 부서 참여 주요 관광지 불편사항 사전 조치 항일암·오동도 등 교통 혼잡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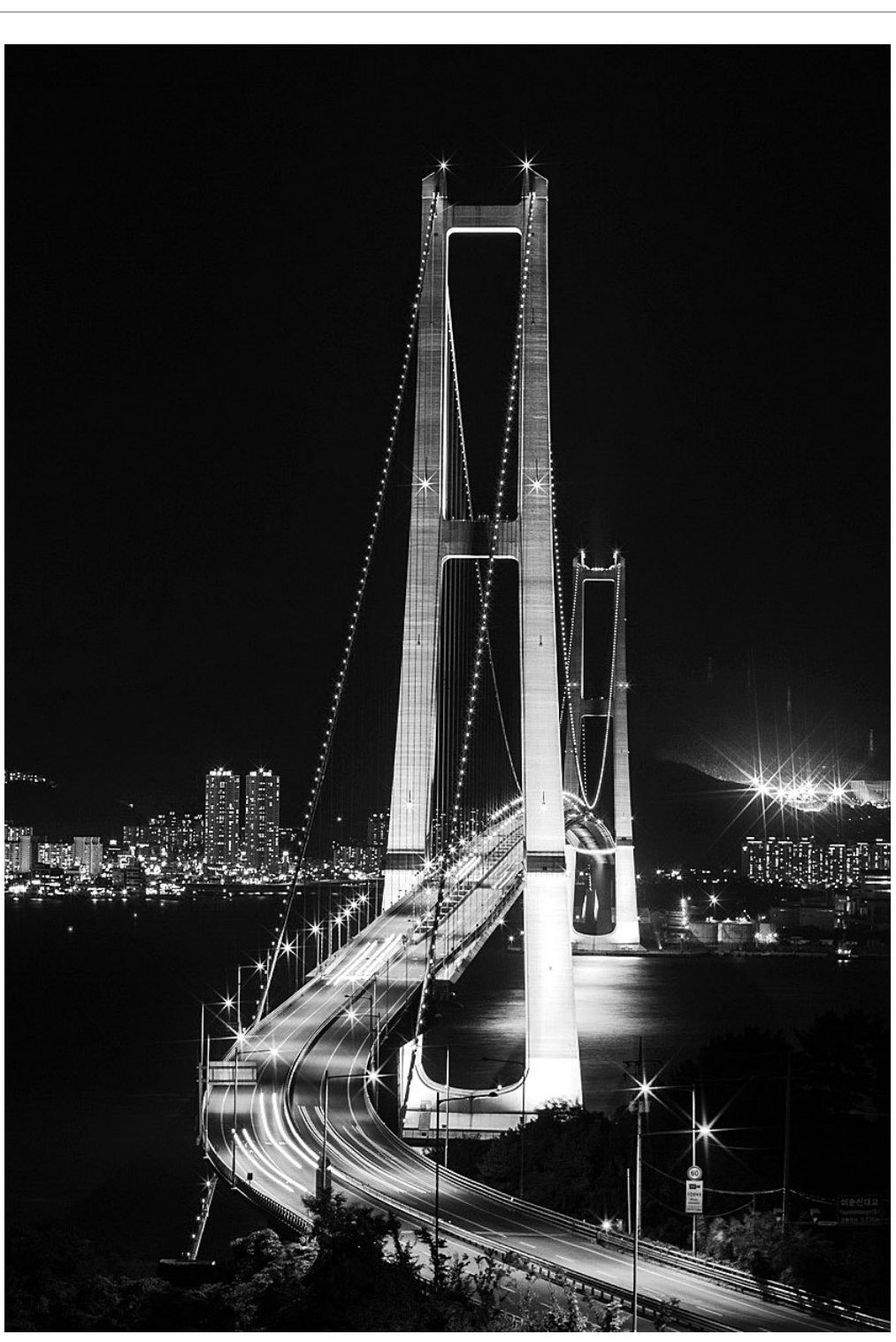
여수시가 관광객이 불리는 3월부터 10월까지 ‘관광종합대책반’을 가동해 민작 대응에 나선다. 여수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27일까지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관광종합대책반을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반에는 하루 70여 명이 투입되며, 상황반·시민불편·교통·식품 위생 숙박·쓰레기·공중 화장실 등 15개로 나뉜다. 여수시는 최근 관광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주요 관광지 불편사항에 사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여수시는 관광 만족도 설문조사를 벌여 바가지 요금과 고물가 등 불편요소 찾아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관광 안내·불편처리’ ‘교통’ ‘식품·위생·숙박’ ‘쓰레기 처리’ 4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음식·숙박업소의 불친절·바가지요금·호객



여수시가 오는 3~10월 관광종합대책반을 가동하며 관광객 편의 높이기 위해 나선다. 지난해 펼친 바가지요금 근절·친절 개선 운동. <여수시 제공>

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실천 운동과 친절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착한 가격 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항일암, 오동도 등 주요 관광지 대해서는 교통지도도를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할 계획이다. 관광객 교통편과 숙박 등 주요 관광지 맞춤형 안내

를 위한 관광안내소도 운영한다. 정재호 여수시 수산관광국장은 “정결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며 “불편 신고사항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광 품질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이순신대교가 보이는 광양시 야경.

광양 구석구석 관광해설사와 떠나요

‘광양시티투어’ 다음달 9일 시동...광주 출발 광역코스 신설

광양시가 3월부터 광양 구석구석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시티투어의 시동을 건다. 광양시는 최근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순천역에서 출발하는 코스 외에 광주유스퀘어에서 출발하는 광역코스를 신설해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였다고 밝혔다. 판넬코스는 역사힐링투어(월-목), 야경투어(금-토), 단체투어 등으로 운영되며 광역투어는 매일 특색 있는 코스로 1-2회 운영할 계획이다. 야경코스는 순천역 탑승 오후 4시 - 중마관광안내소 탑승 오후 4시 30분 - 이순신대교홍보관 관람 이순신대교먹거리타운 석식 - 배알도섬정원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족구봉산전망 야경 중마관광안내소 밤 10시 - 순천역 10시 30분 등 일정이다. 역사힐링코스는 순천역 탑승 오전 9시 - 광양읍 터미널 탑승 9시 30분 - 백운산자연휴양림 숲캉스 광양불교기독교거리점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광양장도박물관 탐방 - 광양읍 터미널 오후 4시 30분 - 순천역(오후 5시)에 도착하는 코스다. 광양시티투어 관내 코스에 참여하려면 투어 3일 전까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예약

해야 하며, 5명 이상 예약 시 운행된다. 자유로운 코스로 단독투어가 가능한 15명 이상의 단체투어는 관광지 4곳 이상, 관내 식사 1식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하며 투어 7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광주유스퀘어에서 출발하는 광역코스 ‘광양 여행 가는 날’은 광양매화축제(3월), 섬진강유채꽃단지(4월), 백운산자연휴양림, 광양5일시장(5-6월) 등 월별 특화코스로 운영된다. 광양매화축제와 연계해 3월 광역코스는 광주유스퀘어(오전 8시)를 출발해 광양매화축제장에서 축제와 중식을 즐기고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광양역사문화관, 전남도립미술관 등을 투어하고 광주유스퀘어(오후 6시 30분)에 도착한다. 3월 광역코스는 9일과 11일 2회 운영 계획으로 금요일과 수요일 휴무일 제외 온라인 예약 또는 유선으로 예약하면 된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3월에 합친 시동을 걸게 될 광양시티투어는 광역코스 신설로 접근성과 선택권을 대폭 높이고 역사힐링, 야경 등 특화된 코스로 수요자 중심의 투어를 제시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신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현대제철, 순천 초·중·고생 20명에 장학금 2400만원

‘한빛회봉사대’ 27번째 활동

현대제철 순천공장 ‘한빛회봉사대’가 순천 초·중·고교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빛회봉사대는 최근 저소득 초·중·고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순천시에 전했다. 지역에서 27년간 활동해온 한빛회봉사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임직원 179명으로 이뤄졌다. 봉사대는 지역 청소년 20명에게 1년간 매달 1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 장학금은 2400만원에 달한다. 장학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해진다. 한빛회봉사대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학생 480명에게 총 5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금 지원 사업 외에도 장애인 동반 동반,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흙놀이민방탄 배달, 아름다운가게 나눔장터 물품기증, 사랑의 김치 나눔 등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한빛회봉사대’가 지역 청소년 20명에게 지원할 장학금 2400만원을 순천시에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김종락 한빛회봉사대 회장은 “더욱 많은 참여와 함께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순천지역 청소년들이 삶의 용기와 자

신감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동행을 지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28일 322회 임시회 8차 본회의를 끝으로 열흘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는 지난 19일 시작한 뒤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조례 개정안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민열 의원 발의)과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영길 의원 발의) 등이다.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은 “2024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에 감사의 전한다”며 “이번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2024년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자경 기자 gju@

여수 봉황산자연휴양림 야영장 개장

내일부터...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임시 폐쇄 해제

여수시 봉황산자연휴양림이 오는 3월1일부터 야영장을 개장한다. 휴양림 1-2 야영장은 동절기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 폐쇄됐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이 기간 시설물을 보수한 뒤 동절기 기간을 마치고 오는 3월1일 야영장을 개장한다. 휴양림 내 야영장은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관광객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절기 동안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 야영장 시설물

을 보수했다. 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여수시민은 비수기 평일 숙박시설(숲 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이용 요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휴양림 관계자는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봉황산자연휴양림 야영장에서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봉황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061-643-9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전국 자치단체 유일 국무총리 표창...부패 취약 분야 개선

보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12회 국민권익의 날(2월27일)’ 기념식에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보성군은 부패방지 단체 부문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해마다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국민권익의 중진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선 우수기관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국무총리 훈격 수상 기관은 보성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정거래위원회 등 3곳이다. 보성군은 전국 227개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했다. 보성군은 지난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원·국민이 체감하는 청

렴도와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이번 수상에서 보성군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선 7기부터 보성군수로 취임한 김철우 군수의 1호 결재는 반부패 청렴 대책이었다. 이후 보성군은 강력한 반부패 추진 의지를 내세웠다. 지난해 보성군은 전 직원 청렴 실천 서약, 부패방지 청렴 추진단 운영, 청렴 교육·특강 실시, 청렴상시 자가 학습 운영, 청렴 해피콜 운영 등을 추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이 종합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달성에 따른 이번 표창 수상은 보성군민, 공직자, 출향 향우, 관계 기관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보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